

<2023년 1월 22일 주일 핵심 말씀>

주제 :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라.

본문 : 사도행전 16장 30-31절

참고 : 역대하 18장 (참고만 할 것)

- 오늘 본문 말씀,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

“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는다.” 했습니다.

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

“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.” 했습니다.

- <역대하 18장>을 보면,

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모사와 땀을 받고
같이 먹고 마시고 전쟁에 같이 나가서 싸우는데,
여호사밧 왕이 아람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죽게 되었을 때
하나님을 부름으로 인해 살게 되었습니다.

아람의 군대는 ‘아스라엘의 아합 왕’을 죽이려고 왔는데
<아합 왕>이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고,
왕복을 입고 있던 ‘유다의 여호사밧 왕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.

이때 <여호사밧>이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부르니,
하나님은 이를 듣고 적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.

고로 아람의 군사들은

그가 이스라엘의 ‘아합 왕’ 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,
<여호사밧>을 죽이지 않았습니다.

이같이 여호사밧 왕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
하나님을 불러서 살았습니다.

- 우리도 하나님을 불러야, 육과 영의 죽음에서 살게 됩니다.
환난 때도 매일 하나님을 불러야, 신앙이 살고 답을 받게 됩니다.
- 사도행전을 보면,
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최고 환난의 때에
제자들이 뭉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
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.

그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도바울도
회심하고 돌아와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.

유대종교인은 ‘예수님의 이름’ 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,
제자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르며 증거했습니다.

- <사도행전 4장 18~20절>에
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
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라.

우리는 너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듣고 믿는다.
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.”

- 신약의 사도들은
 “〈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〉은 구원을 받는다.
 모두 ‘주의 이름’을 불러라.”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.
- 〈구세주의 이름〉을 불러야, 자신의 마음도 생각도 살아납니다.
- 저마다 직장에서도나 학교에서도나 집에서나
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일을 못 하게 한다고 안 하면,
 힘을 잃고 약해집니다.
- 사람은 하던 것을 안 하면, 힘을 잃게 됩니다.
 - ▶ 가정에서 핍박이 심할 때는 성경도 못 보게 합니다.
 그렇다고 성경을 안 보면, 신앙이 약해집니다.
 외워서 다니면서 읽으면, 힘이 납니다.
 - ▶ 또 운동하는 사람에게
 집에서 운동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라고 하면,
 자기는 운동해서 성공하려고 하니 공부가 안 됩니다.

 이때는 몰래라도 운동을 해야
 마음도 생각도 몸도 풀리고 살아납니다.
- 〈신약 사도시대 때〉도
 핍박하는 자들이 ‘예수님의 이름’을 부르지 못하게 하니,
 서로 모여서 속으로 “예수님이 주다.” 부르면서 믿었습니다.

부르니, 힘이 나고 기뻐서 신앙이 살았습니다.

- <시편 50장 15절>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“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.
그러면 내가 네게 함께하고 영화롭게 하리라.” 하셨습니다.

- 선생도, 신앙의 성장기 때 가정의 핍박이 있었습니다.

아버지가 교회도 못 가게 하고,
성경도 못 보게 하고, 기도도 못 하게 할 때,
속으로 ‘주의 이름’ 만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.

성경에 “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.” 한 대로
늘 <주>를 부르니 ‘주 예수님’ 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,
꿈에도 ‘주 예수님’ 이 보였습니다.

- <나무에 올라간 사람>은 - 바람이 세게 불수록
그 나무를 더 꼭 껴안고 있어야 떨어지지 않습니다.

<하나님을 믿는 자들>도 - 환난이 올수록
하나님을 더 부르고, 성령님을 더 부르고, 예수님을 더 부르며
삼위와 예수님을 꼭 잡고 살아야 됩니다.

- <주의 이름>을 부르지 않으면,
오늘 본문 말씀같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.

- <삼위와 주 예수를 부르는 것>을 ‘낙’ 으로 삼고
매일 끊이지 않고 부르고 간구하며
지난날 도운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때,
구원을 더 확신하고 살게 되고, 올해의 목적에도 이르게 됩니다.
- 사도시대 때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한다고 해서
주를 믿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으면, 바로 신앙이 죽었을 것입니다.

신약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데
<예수님>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았으면,
<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>을 받지 못했습니다.

- 사도행전에 ‘예수님’ 이라는 단어가 70번 넘게 나오고,
‘주’ 라는 단어도 100번 가까이 나옵니다.

<주>는 오직 ‘주 예수 그리스도’ 이십니다.

- 신약의 사도들은
그렇게도 ‘주의 이름’ 을 부르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.
- 환난 때는 ‘주를 부르는 신앙’ 만 해도 신앙이 죽지 않습니다.
신부는 어려울 때 신앙을 불러야 힘이 옵니다.
- <하나님>과 <주 예수>를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 끊어집니다.
안 부르면 통하지 않게 되고, 소통이 안 됩니다.

<예수님>도 환난 때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.

- <로마서 10장 10절>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,
“주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,
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.” 했습니다.

<예수님>만이 ‘주’ 이십니다.

- <시편 86편 3절>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,
“내가 주를 종일 부르나이다.” 했습니다.

구약 때는 <하나님>을 ‘주’ 라고 했습니다.

- 신약성경을 보면,
‘예수님’ 이라는 단어보다
‘주’ 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.

<예수님>도 <주>도 똑같이 ‘메시아의 이름’ 입니다.

- <이사야 19장 20절>을 보면,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
“너희를 구원할 주를 보낸다.” 말씀하시며,
이 땅에 보낼 메시아, 곧 ‘주’ 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.

- <주>는 ‘예수님의 사명의 이름’ 입니다.
‘구세주라는 뜻의 단어’ 입니다.

- 또한 <주>는 ‘주인’ 이라는 뜻입니다.
<예수님>은 ‘신약 시대의 주인’ 으로 오셨습니다.

사도행전을 보면,

<예수님>을 거의 ‘주’로 호칭해 부르고 썼습니다.

- <욥기 41장>을 보면,

욥이 최고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나 여호와는 만물의 주인이다.

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.” 하셨습니다.

- 욥은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말하기를,

“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,

무슨 경영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.” 하며
최고의 단어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. (욥기 42장 1~2절)

이때는 욥이 최고의 환난을 받으며

“나는 이제 끝났다.” 할 때였습니다.

- 시편을 보면, 다윗은

<하나님>을 ‘여호와’, ‘주’로 호칭했습니다.

- <창세기 23장 6절>을 보면,

아브라함을 보고 따르던 자들은

<아브라함>에게 ‘주’라는 호칭을 썼습니다.

이때는 ‘시대의 주인’ 혹은, ‘종족의 주체’라는 뜻으로

<주>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

- 신약 때 사도들은 ‘주 예수’ 라는 호칭을 많이 썼습니다.
이것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

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에 관심 없이 읽으면,
구체적인 것을 모릅니다.

- 평소에도 환난 때도
〈하나님〉과 〈성령님〉과 〈주 예수님〉을 불러야,
입으로 시인이 되어 그 신앙이 죽지 않게 됩니다.

〈삼위와 주를 부르는 자〉는
하루에 수백 번, 수천 번도 부릅니다.

-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
한 마디라도 해야 됩니다.

부르면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하고,
충성하게 해 달라고 하고,
환난의 때에 굳건하게 해 달라고 하고,
문제가 해결되게 해 달라고 하고,
시험에 빠진 자와 힘든 자들을 구해 달라고 하고,
자기와 타인의 건강을 두고 건강하게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.

-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돌과 나무와 꽃,
혹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부르고 이야기하는데,
〈자기를 구원한 자〉는 잘 안 부르고 살고 있습니다.

믿고 살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.

-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도 수시로 불러야 됩니다.
평소에도 늘 부르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.

삼위와 주 예수는 귀머거리가 아니시므로
부르면 다 듣고 아십니다. 무조건 다 아십니다.

부르면, “할 말 있으면 다 해라.” 하십니다.

할 말을 하면,
마음에 “알았다.” 하고 부른 자에게 대답이 들려옵니다.

- 예수님께도 열 번, 오십 번, 백 번을 부르면서
진실로 의문된 것을 물어보면, 답을 주십니다.

주인이라 다 아십니다.

- 궁금한 것은 꼭 물어보고 답을 받아야 됩니다.
자기 자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.

물어보면, 생활할 때 ‘사람’이나 ‘만물’을 통해 대답하시고,
혹은 ‘꿈’에도 계시해 주십니다.

또 ‘자기 마음속’에 대답해 주십니다.

- 모두 <하나님>을 부르고 <성령님>을 부르고

〈주 예수님〉을 부르면서 ‘이르는 2023년’ 이 되기를 바랍니다.

- 특히 힘이 없을 때 삼위와 주 예수님을 부르면, ‘힘’ 이 옵니다.

선생님도 기도할 때 기도도 안 되고, 힘도 없고,

‘어떻게 해야 되지?’ 하고 있을 때,

〈하나님, 성령님, 주〉를 부르니

바로 힘이 오고 기도가 잘 됐습니다.

- “주의 이름, 곧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.”

-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르고, 주를 불러야

환난을 이기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.

- “자기를 구원한 자를 부르는 신앙이 절대적이어야 된다.”

- 하나님과 예수님의 한 마디는

운명을 좌우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.

- 〈이사야 11장 2~3절〉을 보면

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,

오시는 메시아는

〈여호와를 경외하는 것〉을 ‘낙’ 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.

- 우리는 〈주를 부르는 것〉을 ‘낙’ 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.

〈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〉이 ‘기쁨과 희망의 낙’ 입니다.

우리가 ‘주 예수’를 부르고 ‘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’을
낙으로 삼을 때
〈주〉도 ‘우리를 부르는 것’을 낙으로 삼으십니다.

이같이 서로 부르면서 2023년에 이르러야 됩니다.

- 한번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불러 보고,
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도 불러 봐요.

누구를 불러야 힘이 오고 구원이 되는지, 불러 보면 압니다.

- 예수님의 제자들이 ‘주’를 부르니,
〈주〉는 그곳으로 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.

사도바울도 주를 부르면서 기도하니,
병든 자가 나았다고 했습니다.

선생님도 죽음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불렀더니,
그 음성이 들려서 그대로 하여 살았다고 했습니다.

- 신약의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
〈주의 이름〉을 부르며 ‘주 예수님’을 믿고 살아야
구원을 얻는다고 외쳤습니다.

모두 이렇게 하면서,
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.

-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

힘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.

그 마음속에 신앙이 살아 있는 자들입니다.

죽은 자는 아예 주를 부르지 않습니다.

- <주를 부르는 자>는 살아납니다.

부르지 않으면 신앙이 죽고 구원도 이룰 수 없습니다.

<주를 부르는 자>는 ‘그를 시인하는 것’입니다.

고로 사탄이 물러갑니다.

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

- <구세주의 이름>을 부를 때 기쁨이 옵니다.

고로 사도들도 ‘주’를 부르며 환난을 이겼습니다.

-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.

노아, 아브라함, 요셉, 모세를 보내셨고,

사사들과 다윗과 왕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고,

메시아를 보내셨고,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.

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.

그 시대마다 <하나님이 보낸 자>가 ‘하나님’을 부르면,

하나님은 듣고 행해 주셨습니다.

- <사탄의 주관을 받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>은

‘주의 이름’을 부르지 못하게 했지만,
〈주의 사도들〉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능력을 받고 행했습니다.

주를 부름으로 인해 - 예수님도 와서 역사해 주셨고,
사도들도 그 정신을 받고 행했습니다.

그리함으로

- 신앙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,
-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대의 뜻을 이루게 됐고,
- 복음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

- 항상 환난 때는 ‘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’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.

〈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이름〉을 부르고,
〈예수님의 이름〉을 불러야 힘을 받고 살아납니다.

진정 부르면, 즉시 오십니다.

이같이 늘 부르면서 이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

- 각자 이 시대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,
반석 같은 신앙으로 끝까지 이르러야 복을 받습니다.

〈이르는 2023년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